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최근 동정

주요메이커별 2006년,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2007년 설비투자 계획

1 2006년 매출액기준 랭킹

06년에도 브리지스톤사는 엔화약세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약 11%의 매출 증가율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으며, 미쉐린사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브리지스톤은 19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터키의 Sabanci Holdings사와의 합작사인 Brisa bridgestone Sabanci Tire Mfg. Co. Ltd의 높은 매출에 힘입은 것이다. 브리지스톤은 동 합작사에 50: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06년 동 합작사는 4억 8,370만 달러의 매출로 29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3위를 기록한 굿이어사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180억 달러의 매출을 보였다.

순위	회 사	2005년		2006년	
		타이어 판매(백만달러)	*비중(%)	타이어 판매(백만달러)	*비중(%)
1	Bridgestone Corp.	18,333.0	75.0	19,400.0	75.0
2	Michelin	17,920.0	92.5	19,300.0	94.0
3	Goodyear Tire & Rubber Co.	17,500.0	89.0	18,000.0	88.9
4	Continental A.G.	6,350.0	37.0	6,800.0	36.5
5	Pirelli & C.S.p.A.	4,513.0	79.9	4,955.5	81.6
6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3,616.4	77.6	3,702.7	80.7
7	Yokohama Rubber Co. Ltd.	2,965.8	74.3	3,185.5	74.9

* 비중은 전체 매출대비 타이어부문 매출의 비중

2006년 세계 타이어 시장의 규모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1,120억 달러였다. 브리지스톤을 비롯한 빅 3사는 세계 총 매출의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상위 10개 타이어 제조사는 전체 74.5%를 차지하였다. 06년 매출액 기준 순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보면, 05년에 23위를 차지하였던 중국의 Hangzhou Zhongce Rubber Co. Ltd가 거의 50%의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로 10억 8,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4위를 차지하였고, 인도의 Apollo Tyres Ltd가 South Africa's Dunlop Tyres International Ltd의 인수에 힘입어 매출 9억 4,910만 달러를 기록하며 두 계단 상승하여 16위를 마크하였다. 또한, Titan International Inc은 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12단계 상승하여 3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상승은 굿이어사의 북미지역 농경용 타이어와 콘티넨탈사의 북미지역 산업용 타이어 사업부를 인수한데 힘입은 것이다.

〈상위 75위에 새롭게 진입한 타이어 메이커〉

회 사 명	국 가	06년	
		매출액 (만달러)	순위
Pettas Tyre Industry & TradeCo.	터키	13,200	51
Vee Rubber	태국	7,500	63
P.T. Multistrada ArahSarana Tbk. (기존 P.T. Oroban Perakasa)	인도 네시아	6,190	72
Ralson (India) Ltd.	인도	4,980	74
Sameer Africa Ltd. (기존 Firestone East Africa)	케냐	4,360	75

상위 75개사 중에는 중국회사가 11개, 인도회사가 10개, 미국이 8개, 대만과 일본이 각각 5개사, 러시아 4

개사, 이란과 한국이 각각 3개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터키가 각각 2개사, 그리고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체코, 에쿠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스웨덴, 태국, 튀니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트남이 각각 1개사였다.

내년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올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계약을 보면, 콘티넨탈사가 올해 매출 3억 5,840만 달러로 36위를 기록한 슬로바키아 Matador A.S.를 인수하였고, 브리지스톤사가 Bandag을 인수하여 9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 증가 예상된다.

06년도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의 고용직원수 대비 평균 매출액은 05년 대비 8.5% 증가한 211,436 달러였으며, Toyo Tire & Rubber Co. Ltd.와 한국 타이어가 이 부문에서 각각 389,151달러와 350,069달러로 선두를 차지하였다. 한편, 핀란드의 Nokian Tyres P.L.C.는 06년에 18.3%의 매출대비 영업이익율과 12.8%의 매출대비 순 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부문에 서 선두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17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1%로 05년 대비 1.6%p 감소하였고, 매출대비 순 수익률은 1.5%였다.

2 07년 상반기 실적

07년 상반기에도 원재료 비용 인상과, 높은 비용구조 및 오래된 설비 등으로 대변되는 북미시장의 시장성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타이어 제조사들은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07년 연간 실적의 큰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향상이 기대되는 브리지스톤, 미쉐린 그리고 콘티넨탈사는 각각 07년에 상당한 수익의 증가를 예

<07년 주요 타이어 메이커의 상반기 실적>

(백만 달러, %)

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		증가율	이익율		증가율	이익율
브리지스톤	13,107.3	13.4	827.3	21.3	6.3	429.0	61.3	3.3
(타이어 사업부)	10,581.0	15.3	608.0	29.5	5.7	n.a.	-	-
콘티넨탈	10,798.7	10.8	1,228.2	26.2	11.4	773.1	35.4	7.2
(타이어 사업부)	4,172.4	4.5	559.1	62.0	13.4	n.a.	-	-
쿠파	1,439.7	17.9	62.5	n.a.	4.3	38.3	n.a.	2.7
굿이어	9,420.0	2.4	-81.0	n.a.	-	-118.0	n.a.	-
한국 타이어	1,846.0	13.0	170.0	0.6	9.2	n.a.	-	-
미쉐린	11,321.2	4.7	1,074.9	64.4	9.5	587.9	57.6	5.2
수미토모	2,058.9	-0.3	140.9	-6.2	6.8	66.2	324.1	3.2
(타이어 사업부)	1,718.0	8.2	103.8	11.0	6.0	n.a.	-	-

주 1) 각사의 제공자료 기준

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굿이어사의 수치는 078월의 Engineered Products 사업부 매각 결과 치 배제

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두 자리수 매출과 수익의 증가를 기록한 브리지스톤은 07년 연간 매출을 28.1% 증가한 15억 4,000만 달러, 영업이익은 12.7% 증가한 17억 4,000만 달러로 올해 두 번째로 당초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은 상반기의 엔화 약세와 매출 상승에 따른 것이다. 07년에 미쉐린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시장의 트럭 타이어 사업부문에서의 수요 증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동 부문에서 수익 증가와 올해 원재료가격 인상과 관련한부가적인 비용에서 8,000만 달러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콘티넨탈도 상반기에 매출과 수익이 두 자리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연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친 흑자로의 전향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굿이어사는 영업실적을 향상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계획이다. 06년에 7,600만 달러의 이익을 기

록했던 동사는 상반기에 1억 1,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의 순수익은 200만 달러에서 5,6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반기에 동사의 최대시장인 북미시장에서는 타이어 판매 수량이 14.5% 감소하면서 매출은 6.2% 감소하였다. 동사 경영진은 상반기 실적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향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8사분기 동안 적자를 보이던 쿠파사는 올해 1/4 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3,84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는 북미시장에서의 가격 인상과 제품 믹스, 그리고 기타 시장에서의 타이어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감소책의 향상과 06년 발표된 수익 향상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한국 타이어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18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에도 동

사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3월 31일이 회계 연도 마감일인 요코하마사와 도요사 양 사도 1/4분기에 실적 향상을 기록하면서 07년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다.

07년 상반기에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쿠파, 한국타이어, 미쉐린 그리고 피렐리사는 영업이익에 있어서 증가를 기록하였고,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쿠파, 미쉐린 그리고 수미토모는 수익에 있어서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단지 굿이어만이 영업이익과 수익에서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한 독일은행의 분석가는 동사 경영진이 제공한 수치를 기초로 08년에는 07년 5.7% 추정 증가율 대비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쿠파 그리고 한국타이어 4개사는 상반기에 두자리 수 매출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쿠파사는 17.9%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14억 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13.4% 증가한 1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브리지스톤사는 영업이익에서 21.3% 증가한 8억 2,730만 달러, 순이익에서 61.3% 증가한 4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06년 2,590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였던 쿠파사는 07년 상반기에 3,830만 달러의 순수익을 기록하였다. 콘티넨탈 타이어 사업부 또한 매출에서 4.5% 증가한 4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2% 증가한 5억 5,91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미쉐린사는 매출에서 4.7% 증가한 113억 달러, 순이익에서는 57.6% 증가한 5억 8,7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07년 연간기준으로, 미쉐린은 북미시장에서의 승용차용 신차용과 트럭용 신차용 및 교체용 타이어 출하가 06년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교체용 승용차용과 소형 트럭용 타이어의 출하는 2%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미토모사의 07년 상반기 매출은 20억 6,000만 달러로서 0.3%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6.2% 감소한 1억 4,0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 설비투자 계획

미쉐린은 지난 12개월간 멕시코에서의 신규 공장 설립과 캐나다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하여 타이어 제조사중 가장 큰 액수인 18억 달러의 설비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설비 투자부문 2위는 굿이어사로 6억 5,000만 달러의 설비 향상 계획과 미 결정된 수백만달러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 동부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타이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Engineered Products 사업의 판매에서 이익 중 14억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몇 년간 설비투자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해 온 브리지스톤사는 06.8월 이후 설비투자 계획에서 3억 8,000만 달러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재생 산업 공급업체인 Bandag Inc의 인수를 위해 10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세계 주요 타이어 제조업체가 발표한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 12개월간 총 33억 달러였는데, 이는 05.8월~06.8월사이의 설비투자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1년간 두, 세 번째 높은 설비투자액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JK Tyre & Industries Ltd는 동기간 4번째로 많은 설비투자액을 발표하였는데, 동사는 인도의 Mysore에서의 농경용 OTR 타이어 공장을 위한 3,000만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기타 인도 공장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06년에 실제로 지출된 설비투자 액수를 보면, 브리지

스톤사가타이어 부문에서의 19억 8,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22억 5,000만 달러로 선두를 달렸고 미쉐린과 콘티넨탈사가 각각 17억 7,000만 달러와 10억 1,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매출 대비 설비투자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넥센 타이어가 15.8%로 선두를 달렸고, 노키안이 11.6% 그리고 수미토모사의타이어사업부문이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설비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상위 16개사의 평균은 매출대비 6.7%였다.

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는 콘티넨탈이 선두를 달렸으나 8억 4,940만 달러의 대부분의 지출액은 자동차 시스템과 비 타이어 사업 부문에 사용되었다. 타이어 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부문에서의 1위는 06년에 7억 4,150만 달러를 투자한 미쉐린이었다. 브리지스톤사는 지난해 타이어 부문 연구개발비로 6억 1,390만 달러를 사용하여 2위였으며, 굿이어사가 3억 5,6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금호타이어의 연구개발 예산은 7,820만 달러로 매출 대비 4.2%를 기록하였고 피렐리는 3.7%, 미쉐린은 3.6%였다. 동 16개사의 평균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의 평균비율은 3%였다.

지난 12개월간 발표된 설비투자는 세 개의 신규 공장 건립을 포함하는데 이는 브리지스톤사의 일본 Shimonoseki에서의 OTR 타이어 설비, 미쉐린의 멕시코 Silao에서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공장,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중국 Nanjing에서의 래디얼 트럭용 타이어 설비이다.

06년 8월 이후에 발표된 설비투자액의 거의 반(15억 달러)이 북미시장에 할당될 것이며, 아시아 시장에 10억 달러, 유럽시장의 설비투자에 약 9억 7,500만 달러가 쓰일 것이다.

06.8월 이후에 가동되었거나 06년 말 이전에 생산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신규공장도 여러 개 있는데, 이들 설비들은 약 4,000만개의 연간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와 300만개 이상의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렐리와 콘티넨탈은 06년말에 루마니아에서 스틸코드 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하였고, 브리지스톤은 올 연말 전에 하나의 신규 공장을 가동 예정인데 이로서 연간 약 3,000만개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6개의 공장 폐쇄를 벌출할 것이다.

◁06년 발표된 각사 프로젝트 현황▷

◎ 브리지스톤

- 08년까지 3,550만 달러, 태국 Nongkhao에 133 에이커 테스트 트랙과 성능시험장 건립
- 2010년까지 2억 4,000만 달러, OTR 타이어 생산을 위한 일본 Shimonoseki에서의 공장 건립 (일간 합

- 성고무 30톤의 생산능력, 09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
- 2,960만 달러, 신규 OTR 타이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Saga에서의 스틸코드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 향후 4년간 3,300만 달러, 미국 South Carolina주 Aiken County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설비를 위한 신규 생산 장비 도입 및 기존 장

비 교체.

- 향후 4년간 4,230만 달러, 일본 Tokyo 공장에서의 래디얼 항공기용 타이어 생산능력을 두 배로 확대 (08년 하반기까지는 가동 예정)

◎ 콘티넨탈

- 08년말까지 1억 4,800만~1억 7,800만 달러, 미국 Illinois주 Mount Vernon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 확대 (150,000평방 피트 이상의 물리적인 확대를 포함)

◎ 쿠파

- 7,600만 달러, 북미시장에서의 판매망과 제조공정의 효율화
- 투자액 미공개, 영국 Melksham 공장에서의 기술 센터 건립

◎ 굿이어

- 투자액 미공개, 동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공장 건립과 미국 Alabama주 Gadsden과 North Carolina주 Fayetteville 공장에서의 현대화와 생산 확대
- 향후 4년간 1억 달러, 폴란드 Debica 공장에서의 고부가가치 타이어의 생산 확대
- 2,350만 달러, 독일 Furstenwalde에서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 확대(일간 생산능력을 10% 증가시켜 11,000개로 확대)
- 130만 달러, 영국 Birmingham, Fort Dunlop 공장에서의 경주용 오토바이용 타이어 생산 확대

◎ 금호타이어

- 9,000만 달러, 08년 말 이전에 가동되는 중국 Nanjing의 래디얼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에

08년까지 투자(연간 30만개의 생산능력 보유)

◎ 미쉐린

- 향후 3~7년간 7억 4,000만 달러, 멕시코 Guanajuatown 승용차용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 공장에 투자 (동 공장의 최종 종업원 수는 1,300명)
- 향후 4년간 3억 5,000만 달러, 미국 South Carolina 공장의 향상과 생산 확대 (약 100개의 일자리 창출)
- 향후 2년간 4,150만 달러, 캐나다 Nova Scotia의 Bridgewater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공장에서의 생산능력 확대와 유동성 향상 (48개 일자리 창출)
- 08년까지 2,600만 달러, Bridgewater 스틸 코드 공장에서의 생산능력 11% 확대
- 1억 2,900만 달러, 폴란드 Olsztyn 승용차, 트럭 및 농경용 타이어 공장에서의 설비 향상
- 7,400만 달러, 브라질의 Rio de Janeiro 공장의 중형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및 재생 타이어의 생산능력 확대
- 6,400만 달러, Rio de Janeiro 공장 승용차용 및 SUV/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연간 생산량을 160만개로 증대
- 5,000만 달러 : 프랑스 Cholet 공장에서의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 확대(60% 증가시켜 연간 400만개로 확대), Bourges 공장에서의 항공기용 래디얼 타이어 생산능력 두 배로 확대
- 약 3억 4,000만 달러, 향후 5년간 독일 주재 5개 공장의 현대화와 향상 (Bad Kreuznach와 Hallstadt에서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공장과 Homburg/Saar과 Karlsruhe에서의 트럭용 타이어 공장 그리고 Trier에서의 비드와이어 공장. 상기

5개 공장은 연간 1,700만개를 생산, 5,600명의 종업원이 고용)

◎ 노키안

· 2억 5,300만 달러, 향후 4년 내에 러시아 Vzevolozh 타이어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확대 (두배, 1,000만개로 확대)

◎ 피렐리

· 투자액 미공개, 이탈리아 Turin에서의 각각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공장을 최첨단 기술적 산업적 센터로 통합

◎ 도요

· 09년까지 5,000만 달러, 설립 3년 된 미국 Georgia주 Bartow 공장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 트럭용 타이어 생산능력 확대 (65% 증가시켜 330만개로 확대)

◎ 요코하마

- 08년까지 2,540만 달러, 중국 Hanzhou에서의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공장에서 생산능력 확대 (두배, 200만개로 확대)
- 09년까지 8,300만 달러, 일본 Shinshiro-Minamid에서의 공장에서 고성능타이어의 생산능력 확대 (3배, 310만개로 확대)
- 09년까지 5,800만 달러, 태국 Amata City에서의 트럭용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생산능력 확대 (2배, 280만개로 확대)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7.9.3일자,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7.9.10월호〉

주요 타이어 메이커별 최근동정



미·쉐·린

◎ 미쉐린, 멕시코에 신규 PCR 공장 설립

미쉐린사는 멕시코지역에 주력하며 향후 4년간에 걸쳐 동 지역 신규 공장 설립에 7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동사는 멕시코 Silao에 신규 공장을 설립 할 계획인데, 동 공장은 2010년에 가동을 시작, 총 1,300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멕시코 국내 공급 및 미국

수출용 승용차와 SUV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동차 및 타이어 시장이며, 미국의 빅 3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및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낮은 비용의 제조기지로써 멕시코를 선택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의 최대 제조 부문이며, 07년 2/4분기 자동차 생산은 1/4분기 대비 14.4%가 증가한 515,543대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멕시코 지역에 이미 많은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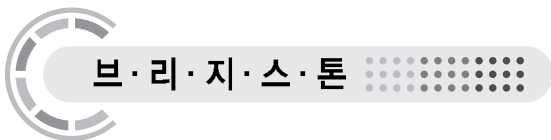
고 있으며, 2002년에 Queretaro 주에 트럭 및 승용차용 타이어 제조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고 인근 지역에 재생타이어 공장을 설립했다.

(자료 : 영국「Tyres & Accessories」 07.9월호)

◎ 미쉐린, 미국 Oliver Rubber사 인수 확정

미쉐린 북미사는 미국 Ohio주 Findlay 주재 Cooper Tire & Rubber의 자회사인 Oliver Rubber사의 인수를 위한 최종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동 Oliver사는 타이어 트레드 고무와 재생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수 이후에 동사는 미쉐린 북미사의 자회사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인수 비용은 약 6,900만 달러로 알려져 있다.

(자료 : 미국 「Rubber World」 07.9월호)



브·리·지·스·톤

◎ 브리지스톤,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장 생산능력 확대 계획

브리지스톤 인도사는 인도 Indore시에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래디얼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확장은 인도 국내 시장의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동사 인도네시아사는 인도네시아 Jakarta 동부, Karawang의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래디얼 생산설비에서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동 확장은 주로 수출시장에서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Indore 공장은 국내 시장 공급용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면서 1998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인도에서의 차가운전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사 인도사는 타이어에 대한 수요, 특히 대규모 림 직경을 가진 타이어 부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사 인도사는 60억엔(2,640만 파운드)을 투자하여 Indore 공장의 생산능력을 현 일간 4,500개에서 2010년까지 15,000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Karawang 공장은 1999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와 해외 시장 공급용으로 승용차 및 소형 트럭용 래디얼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동 확장 계획은 주로 동 설비의 고성능 타이어 라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동 설비 확대로 브리지스톤그룹의 전략적 제품의 공급처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계획에는 약 155억엔(6,820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이며, 2010년까지 일간 생산능력은 8,400개가 증가한 27,000개가 될 예정이다

(자료 : 영국「Tyres & Accessories」 07.9월호)

◎ 브리지스톤, 남아프리카에서 런플렛 타이어 생산 개시

브리지스톤사는 남아프리카의 서북부 지방인 Brits 공장에서 현지와 해외 공급용으로 런플렛 타이어 생산을 개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동사는 남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BMW 차량 장착을 위한 신차용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런플렛 타이어를 공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04년 3월에 브리지스톤사는 Brits 공장에 70백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동시에 동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간 1.45백만개에서 1.9백

만 개로 증가시키고 7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공장은 브리지스톤의 4번째 런플랫 타이어 제조 공장이 되며, 동사는 현재 일본 Tosu, 폴란드의 Poznan, 그리고 06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한 미국의 North Carolina의 Wilson에서 런플랫타이어를 제조하고 있다.

〈자료 : 유럽「European Rubber Journal」 07.9 · 10월호〉

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공장인 미국 Alabama주 Gadsden 공장의 현대화와 확장에 착수하였다. 향후 2~3년간 1억 달러의 투자액으로 동 공장은 대규모 직경을 가진 고부가가치 타이어 생산 능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24인치까지의 림 직경을 가진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신규 타이어 제조 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205,000 평방피트의 물리적 확장을 포함한다. 기존 공장은 280만 평방 피트였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9.24일자〉



긱·이·어



◎ 긱이어, 아시아와 동유럽 신규 공장 설립 계획

지난 8월 15일 긱이어사는 기존 설비에서의 생산능력 확대를 비롯한 아시아와 동부 유럽 지역에서의 신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고부가가치 타이어 라인을 위해 세계 전역의 생산능력을 40% 증가시키고 기존 저비용 설비에서의 생산능력을 1/3 증가시킨다는 동사의 전체적 계획의 일환이다. 동사에 따르면 동 신규 공장과 생산 능력 증가는 2012년까지 저비용 국가로부터의 세계전역 타이어 생산의 절반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뒷받침 할 것이다. 동 계획 하에 동사는 중국 Dalian에서의 타이어 설비와 미국 North Carolina 그리고 Alabama의 Gadsdenm 설비에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자료 : 영국「Tyres & Accessories」 07.9월호 76p〉

◎ 긱이어, 미국 Gadsden 공장 현대화 및 확장 착수
긱이어사는 지난 9월14일 설립한지 78년 된 승용차



피·렐·리



◎ 피렐리, 중국 Yanzhou 신규 공장에서의 생산 시작

피렐리사는 지난 2년간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Yanzhou City의 공장에서 4/4분기까지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동 신규 공장은 림 직경 14~18인치까지의 전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을 포함할 것이며, 중국 국내 및 아시아 전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 신규 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총 450만개 타이어이며, 동 공장 건립은 동사의 1억 8,000만 달러 확장 및 현대화 3년 계획의 일환이었다.

〈자료 : 미국「Rubber & Plastics News」 07.10.1일자〉

◎ 피렐리, Slatina 신규 공장 투자 계획

피렐리사는 루마니아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3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동 투자액은 고

성능 타이어와 스틸코드를 생산하는 Slatina에서의 두개 공장 설립에 대해 이미 지출한 액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2006년에 가동 후 첫 해에 200만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한 Slatina에서의 하나의 신규 공장에 2억 3,400만 달러를 지출하였고, 2008년에는 4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사는 래디얼 타이어에 사용되는 스틸코드를 생산하는 또 다른 공장에 5,5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또한 디젤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터를 생산하는 루마니아의 신규 공장에 3,44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자료 : 미국 「Rubber World」 07.9월호〉



쿠·퍼

◎ 멕시코 합작 회사 건립

쿠퍼사는 멕시코에서 현지 타이어 제조사인 Corporacion de Occidente S.A. de C.V. 과 판매 및 유통 합작 벤처를 설립하여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래디얼 타이어 생산 계약에 서명하였다. 양사가 50:50대 지분을 가진 멕시코 Queretaro 주재 Cooper Tire & Rubber Co. de Mexico S.A. de C.V. 합작사는 양사의 모든 다른 associate 브랜드 타이어 뿐만 아니라 Cooper와 Pneustone 브랜드의 멕시코 시장에서의 판매,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9.24일자〉



요·코·하·마

◎ 요코하마사, 태국서 성능시험장 설립 계획

요코하마사는 대규모 성능시험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태국 투자 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에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동사는 이미 태국 Rayong Province에 169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약 25억엔(1,100만 파운드)의 비용으로 설립될 동 성능시험장은 09년 3월말에 완료 될 예정이다. 동 신규 성능시험장 건립을 위해, 동사는 총 4.1km의 도로 길이를 가진 고속 순회로와 1km의 직선트랙을 건설할 예정이다. 동사는 또한 주행 안전성, 연료 효율성, 내구성, 소음, 진동 그리고 승차감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 도로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동사는 일본의 Ibaraki Prefecture와 Hokkaido에 성능시험장을 가지고 있다.

Hokkaido 시험장은 겨울용 타이어의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태국 시험장은 세계 전역 동사의 타이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것이며,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생산 본부에서 제조된 동사의 타이어는 동 시험장에서 시험이 이루어 질 것이다.

〈자료 : 영국 「Tyres & Accessories」 07.9월호〉